

VOL.13
마음이 통하는

길

마음이 통하는
VOL.13
길



KTTU 클로즈업 2014 KT노동조합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기획특집

사면초가 kt, 출구는 없나?

현장 24시

충남고객본부 천안지부 CS컨설팅팀 김정진 조합원

길따라 멧따라

시를 따라 걷는 산책길 소개

항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항해시대는 15세기 말부터 18세기 중엽까지 유럽의 배들이 항로를 개척하고 탐험과 무역을 벌이던 시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메리카 대륙과 같은 지리적 발견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11대 집행부가 강한 노동조합 건설이라는 목표를 향해 대항해를 시작한 지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술한 시련과 곡절을 넘어 지금의 KT노동조합이 건재하듯 2014년은 더 힘찬 도약으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통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며 현장중심의 노동운동을 펼치는 강한 노동조합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재도약을 위해 현장의 단결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조합원 모두의 조직적 단결과 힘찬 결의가 필요합니다. 첫 출발의 마음을 잊지 않고 다시 순풍에 돛을 활짝 펼치겠습니다. 더 큰 도약과 전진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Contents

발행인 | KT노동조합 위원장 정운모 편집인 | KT노동조합 정책실장 차완규 발행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KT노동조합 031-727-2835 발행일 | 2014년 4월 8일(격월간) 제작 및 디자인 | kt 그룹희망나눔재단 02-3414-2053 인쇄 | 애드그린(주) 02-498-6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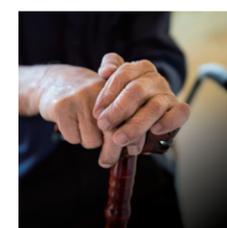


04 KTTU NEWS



08 KTTU 클로즈업 01 2014 KT노동조합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12 기획특집 사면초가 kt, 출구는 없나?



03 2014 vol.13 04



16 해피투게더 치매환자 59만 시대, 당신의 가족은 안녕하십니까?



18 현장 24시 충남고객본부 천안지부 CS컨설팅팀 김정진 조합원



22 KTTU 칼럼 01 비효율 딛고 경쟁력 끌어올린다

24 KTTU 칼럼 02 106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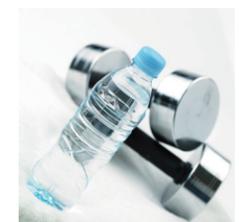
26 이슈 & 사회 베이비박스과 입양특례법에 대한 찬반 논란



28 길따라 멧따라 시를 따라 걷는 산책길 소개



표지 대의원들은 대강당 입구에 마련된 현수막 위에 손도장을 프린팅하며 결의를 다지고 대회장에 입장하였다.



32 건강 & 과학 100세 건강 장수를 위한 10가지 방법

KTTU news



두 차례 통상임금 토론회 참석

개념 및 범위 집중 논의, 대법원 판결 해석 공론화 강조



KT노동조합은 통상임금에 대한 다양한 논란과 해석에 접근하며, 관심을 지속하고 있다. kt의 통상임금은 현재 법률상 기준연봉만 해당 하나, 노동조합은 판례와 동향, 지침 등을 면밀히 주시하며 현장에 이로운 방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동조합은 지난 1월 10일 (금)에 이어, 2월 12일(수) 관련 토론회에 참석했다.

노동법률원과 매일노동뉴스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1월 23일 노동부 지침 이후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가 집중하여 논의됐다. 결론적으로, 참석자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을 제한하는 수준에 그쳤고, 통상임금에 대한 해석이 근로 문제에서 단지 임금 문제로 변질됐기 때문에 논란이 증폭됐다"며 안타까워했다. 기존 판례가 통상임금을 가산임금 산정기초로 접근한 데 반해,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금문제로 접근했기 때문에 노사간 대립이 극명하다는 것이다.

발제에 나선 김기덕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구체적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근본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을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수당의 기초수단(제56조)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막상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서는 기업쪽 손을 들어 의미를 축소하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판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공론화시켜 노동자들의 권리확보를 위해 노동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유감

지난 12월 18일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1월 23일 노동부 지침 발표까지 노동계는 숨죽인 채 신경을 곤두세웠다.

결과는 사용자 편으로 기울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주된 판결 내용인양 비쳤으나, 그 이면에는 ▲복리후생비 제외와 ▲지금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재직 기준을 못 박았다. 또

▲기업이 중대한 어려움을 겪을 경우 통상임금의 소급 지급을 피할 수 있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끼워 넣어 발목을 잡았다. 한발 더 나아가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을 확대하여 해석해 노동계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대법원과 정부가 나서서 '기업 대부분이 복리후생비나 정기상여금을 재직자에 한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은 셈이다. 이에 따르면, kt의 경우도 성과급에 '지금일 현재 재직자 한 지급'이라고 명시돼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록 단순하지만 명백하게, 오늘도 노동계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는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2014년,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사용자 간의 엇갈린 행보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 UN SDGs 포럼 창립

KT노조 최장복 조직실장 자문위원 위촉



KT노동조합은 2월 18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UN SDGs) 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했다.

UN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4년 UN 총회에서 인류의 삶과 지구의 환경을 지속시키기 위한 주 의제로 상정되며, 식량안보·물과위생·에너지·교육·빈곤퇴치·건강·기후변화·환경·자연관리·고용 및 노사·성평등 등 총 29가지 의제를 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UN사무총장이 SDGs 설정에 대한 한국·유엔 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와 UN SDGs지원 한국협회가 주체가 되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리더십을 모아 국회와 민간 공동으로 '국회 UN SDGs 포럼'을 창립한 것이다. 특히 주요 기업 리더 및 기관 리더로 구성된 1대 자문위원단에 KT노동조합 최장복 조직실장이 위촉돼 의미를 더 했다.

12개 지방본부 대의원대회 개최

정윤모 위원장 "kt 재도약위한 기반마련에 힘 쓸 것"

KT노동조합은 2월 19일(수)부터 20일(목)까지 12개 지방본부별로 지방본부 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2014년 노동조합 정기 지방본부대의원대회에서는 ▲지방본부



2013년 활동보고 및 2014년 사업계획안 심의 ▲지부로부터 건의된 사항 및 결의문 채택 ▲기타 지방본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충북지방본부를 찾은 황성관 사무총장은 위원장 격려사를 대독하며 "현장의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올 한해 지방본부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를 열게 돼 기쁘다"고 인사한 뒤 "올해 수많은 현안이 우리 앞에 놓여있지만, 무엇보다 각종 평가와 과중한 업무로 인한 노동환경 개선과 1등 kt로 재도약하기 위한 기반마련에 힘 쓸 것"이라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를 위해 노사가 장기적 관점을 토대로 조합원 만족도 향상 및 조합과 회사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현장 조합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노동조합이 2014년 힘 있는 사업과 영향력 있는 활동들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3년 하반기 회계감사 5일간 수감



노동조합은 규약 제43조에 의거 2013년도 하반기 회계감사를 수감했다.

- 기간: 2014년 2월 24일(월) ~ 2월 28일(금), 5일간
- 장소: 중앙본부 대회의실
- 내역: 2013년 하반기 지출증빙 일체
- 회계감사위원(총 7명)
 - 대표위원: 부산지방본부 남울산지부 임태복
 - 회감위원: 서부지방본부 안산지부 유대중(간사)
 - 강북지방본부 을지지부 구자철
 - 충남지방본부 북대전지부 임재한

대구지방본부 안동지부 김시동
본사지방본부 국제통신은행센터지부 권영세
강원지방본부 강릉지부 김종국

그룹노조 제1차 대표자회의 열어

"위기 돌파하고, 그룹노조 전문성 넓혀나갈 것"



KT그룹노동조합협의회(이하 그룹노조)는 2월 25일(화) Ktds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그룹노조(의장 정윤모) 2014년 제1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회칙 제6조에 의거한 KT렌탈오토케어노동조합 가입인준 및 현안사항을 집중하여 논의했다.

이날 정윤모 의장은 "kt그룹 전반의 위기가 대두된 2014년, 재도약과 근로조건 사수 및 권익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그룹노조 차원의 연대강화와 소통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한 뒤 "또한, 그룹노조 활동이 향후 IT서비스연맹의 주도적 역할로 연계·강화되도록 전문성을 넓혀나갈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KT렌탈오토케어노동조합 가입으로 그룹노조 회원사 조합은 총 14개로 늘고, 조합원 수 3만2천명을 넘어섰다. (회원사노조는 KT, KT텔레캅, KTis, KTcs, Ktds, KT링커스, KTH, KTens, KT에스테이트, Ktsat, KT파워텔, KFnS, KT렌탈, KT렌탈오토케어)

2013 회계연도 하반기 회계감사 총평 실시

"사소한 내역까지 알뜰하고 구체적인 집행에 감사"



KT노동조합은 2월 28일(금)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2013 회계연도 하반기 회계감사 총평'을 실시했다. 중앙회계감사위원회 임태복 대표위원은 총평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조합원들의 고용과 복지 사수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정윤모 위원장님과 중앙상무집행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지난 5일 동안 2013년 하반기 지출결의·각종대장·통장·첨부 및 준비자료 등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조합비가 알뜰하고 계획적으로 집행돼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작은 금

액이나 사소한 내역이라도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윤모 위원장은 “창사 이래 첫 연간실적 적자라는 무거운 짐을 떠안은 상황에서 11대 집행부는 끝까지 조합비를 철저히 투명하게 집행할 것”이라 강조한 뒤, “성실하고 꼼꼼하게 수감에 임해주신 중앙회계감사위원들께 전 조합원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고 인사했다.

전국 조직·여성국장워크숍 개최 및



3.8여성노동자대회 참여

KT노동조합은 3월 6일(목) ~ 7일(금) 도고수련관에서 '전국 조직·여성국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는 전국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재정담당국장회의 등 주요 회의 세부일정을 공유하고, 전국 조직차원의 준비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워크숍 참석 후 전국 여성국장들은 3월 7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구로구민회관에서 열리는 한국노총 주관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전국 여성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

한국노총, 3·8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열어

106주년을 맞은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여성노동자대회는 '함께 키우는 평등세상'을 슬로건으로 ▲노조 내 성평등 실현 및 여성 대표성 강화 ▲노동법 개정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 ▲여성고용안정 강화 및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대 ▲임신출산, 보육교육 국가책임제 이행 촉구 ▲일생활 균형을 위한 실 노동시간 단축 등을 목표로 한다. 한편, 전국 조직·여성국장 워크숍 참석자들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의료민영화 저지 1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전국 재정담당국장회의, 충남지방본부서 개최



올해 지방본부별 노동조합 예산편성 논의 KT노동조합은 3월 10일(월)부터 11일(화)까지 1박 2일 동안 충남지방본부에서 전국 재정담당국장 회의를 열고,

2014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에 앞서 올해 지방본부별 기초예산과 사업계획에 따른 노동조합 예산편성(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호섭 사업지침실장은 “전국 대의원대회를 준비하며 올해 집행부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지방본부 예산이 체계적이고 검소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자”고 강조했다.

제4차 중앙상무집행위원회의 개최

2014년 전국대의원대회 3가지 안건 확정



KT노동조합은 3월 12일(수)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2014년 제4차 중앙상무집행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2014년도 전국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본회의 안건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상무집행위원들은 PT 자료를 보며, 열띤 토론을 벌인 끝에 ▲2013년 사업보고(안) ▲2014년 사업계획(안) ▲조합원 징계 재심 등 총 3가지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서 정윤모 위원장은 “올해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고 준비하여, 계획 이상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 것”을 주문했다.

KT링크스 노동조합 창립 32주년 기념식, 정윤모 위원장 참석



KT노동조합 정윤모 위원장은 3월 13일(목) KT링크스 노동조합 창립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정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KT링크스 노동조합 창립 32주년을 축하하며, 2014

년이 한국노총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 노동자들의 미래를 밝히는 원년이 되도록 함께 연대의 힘을 보여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KT링크스는 1988년 한국공중전화관리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현재 공공시설에 설치된 공중전화 사업을 발전시켜 멀티공중전화부스, i-Frame, 라바짜-커피유통, AED-스마트포스, 물류사업 등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2014년도 제2차 산하조직 대표자회의 개최

전국대의원대회 점검 및 의료 민영화 저지 동참 결의

KT노동조합은 3월 17일(월) 중앙본부 대회의실에서 2014년도 제2



차 산하조직 대표자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사항 및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먼저, 2014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대의원 및 사고지부 현황을 점검한 뒤 지방상집, 지부장, 회계감사, 선관위 등 총 450여 명의 참석인원을 확정했다. 이어 본사지방본부 소속이었던 네트워크운용단 및 IT서포터즈가 3월 1일자로 관할이 조정됨에 따라 각 지방본부의 소속 지부 및 조합원 변동사항을 점검했다.

정윤모 위원장은 “전국대의원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조직적 단결과 결의가 필요하다”며, 조합간부들의 심기일전을 강조했다.

이 밖에 합동추모제 등 노동조합의 향후 일정을 논의 한 뒤,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동참을 결의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중앙본부 소회의실에서 재정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2014년 지방본부 및 전체 조합예산 편성(안)'도 확정했다.

2014년 지방본부별 춘계체육행사 진행안내



2014년 춘계 체육행사를 시행할 계획이오니 각 지방본부에서는 소속 지부 실정에 맞게 진행하시고, 특히 행사 당일 조합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2014년 4월 7일(월) ~ 4월 30일(수), 근무시간 외 시행금지(토/일 포함)
- 대상: 재직중인 임직원 및 계약직
- 예산: 1인당 2만원(체육행사비)
 - 예산집행 기준 준수 및 초과집행 금지
 - 불참인원에 대한 예산집행 금지(단, 근무로 인한 불참자는 예외 인정)
- 행사내용(권장사항)
 - 숲길걷기, 요가 등 힐링프로그램
 - 연극/콘서트 등 공연관람, 스포츠/전시회 관람 등 문화활동
 - 복지시설 자원봉사, 환경/문화재 보호 등 사회공헌활동
 - 생활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건강증진활동
 - ※ 등산 등 운동경기 행사 추진 시 행사전 '심폐소생술' 시범
- 기타사항
 - 조직 활성화 차원에서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행사내용 결정
 - 지나치게 과격한 운동은 가급적 지양

-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 철저 시행
- 고객서비스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로 적의 시행
- 행사 중 대외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정위원장, 전국 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 3월 대표자회의 참석

어려움 처한 동지들 관심 돌 것 당부



정윤모 위원장은 3월 19일(수)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IT사무서비스 노동조합연맹 3월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여 회원사 대표들을 격려하고 논의를 주도했다.

이날 회의는 보고사항, 현안사항 공유, 안건심의·의결, 기타토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보고사항으로는 ▲2월 대표자회의 결과 ▲한국노총 전국 여성노동자대회 참석결과 ▲5/1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한국노총 통상임금지침 활용 등이었다.

한국노총, 5.1 전국노동자대회 회원사 참석 독려

한국노총은 해마다 개최하던 5월 1일 노동절 마라톤대회를 올해는 총력투쟁의 일환으로 전국 노동자대회로 대체하기로 한 바 있으며, 이날 연맹은 회원사 조합원들의 많은 참석을 적극 독려했다. 또 현안공유에서는 ▲연맹 사무실 확장요구 ▲국제교류사업 일정정리 및 참가단 구성 ▲ICT 회관건립 추진위 진행 ▲회원사 현장순방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IT연맹 사무실 확장논의는 지난해 4월 KT노동조합을 필두로 한 KT그룹노동조합협의회 소속 11개 노조가 연맹에 가입하면서 시작됐다. 연맹은 사무실 공간이 협소해 원활한 논의를 위한 회의실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그동안 한국노총에 지속해서 확장요구를 해왔고, 현재 긍정적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다. 이와 함께 연맹 핵심사업인 ICT회관 확보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20일 건립추진위원회 1차 회의, 3월 6일 2차 회의를 시작으로 올 해 상반기 중 논의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회원사 현장순방과 관련해서 공동위원장을 맡은 정윤모 위원장은 “각 회원조합 위원장들께서는 임공교섭이나 법정관리 등 어려움에 처한 사업장 동지들께 관심을 두시고,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격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여성조직 활성화 및 여성조합원 지원을 위한 '연맹 여성위원회' 구성과 ▲회원조합 교섭지원을 위한 '투쟁선봉대 구성' 안건이 가결됐다.

2014 KT노동조합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전진!



2014년 KT노동조합 정기 전국대의원대회가 지난 3월 27일 분당 kt본사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300여 명의 조합간부와 대의원들이 2014년 사업계획 등 3개 안건을 결의하며 노동조합의 힘찬 전진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장이 됐다.

27일(목) 오후 2시에 시작된 전국대의원대회는 식전행사로 뜨겁게 막이 올랐다. 이번 대회는 KT노동조합 11대 집행부의 마지막 정기 대의원대회이자, 한국노총 가입이후 최초로 맞이하는 대회로서 임하는 각오가 남달랐다. 대강당 입구에는 핸드프린팅이 진행됐다. 대의원들은 마련된 대형 현수막 위에 손도장을 프린팅하며 결의를 다지고 대회장으로 입장, 노동조합 발전의 염원과 신뢰를 담은 각 지역 조합원들의 축하메시지와 11대 집행부의 활동상을 담은 영상을 통해 상호 소통하는 노동조합 건설을 재확인했다.

뒤 이어 본격적인 본행사가 시작됐다. 이날 자리에는 정운모 위원장을 비롯 황성관 사무총장, 초대 최상용 위원장 등 조합간부 및 대의원 그리고, 한국노총 가입 첫 정기 전국대의원회인 만큼 한국노총 이병균 사무총장,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 노조위원장 등 한국노총 산하조직 대표들도 함께했다. 특히 김무성, 정몽준, 남경필, 정병국, 원유철, 김성태, 권은희, 한정애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황창규 회장 및 임현문 부사장 등 경영진, UCC회원사 및 협력사, IT사무서비스연합, 매일노동뉴스 등 각계각층의 내·외빈 총500여명이 자리를 빛냈다.

노동조합운동 32년사를 담은 영상도 이어졌다. 1982년 KT노조설립부터 90년대 구조조정 등 해체 위기를 거쳐 시대의 흐름을 타고 유연한 협상을 지향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슴 벅찼던 순간들을 되짚으며, 향후에도 고난과 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가며 선진 노사관계의 본보기가 되는 노동조합이 될 것을 다짐했다.

집행부 3년차, 더 낮은 자세로 현장 경청할 것

정운모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한국노총 가입이후 첫 번째 전국대의원대회라 뜻 깊다.”며 “올해는 11대 집행부 3년 차의 중요한 해다. 지난해 kt의 기록적인 당기순손실과 고객정보유출 등으로 조합원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상태”라 조직의 현 위기를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난제 극복을 위해 “kt의 경영실태 및 보안에 대한 체계적 감시에 조합의 목소리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신속히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것”이라며, “새 수장을 맞은 한국노총과의 연대를 통해 KT 노동조합의 위상을 정립하고, 향후 정년연장과 근로시간단축 등의 과제에 대한 대비책과 현장 노동



자들에게 실익이 되는 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 약속했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 "현재의 기틀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정통성 있는 민주노조 계승을 위해 총 단결할 것"을 강조하고, "조합원의 위상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속에 '변화와 소통' 기틀을 완성해 가는 힘찬 도약과 전진의 해를 만들어 갈 것"이라 선언했다.

이어진 한국노총 이병균 사무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정보통신의 역사와 함께해 온 KT노동조합 전국 대의원대회를 100만 한국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축하한다. 급변하는 IT산업에 도전과 시련이 있겠지만 정 위원장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이 소통한다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끈끈한 연대를 당부하고, 한국노총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 참석한 국회의원, 특히 6.4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축사를 통해 일찌감치 눈도장을 찍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중진의원은 "지난 몇 년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kt를 지켜왔지만, 반도체 신화를 떨친 황창규 회장께서 kt를 맡아 큰 기대를 건다"며 전국 대의원대회를 축하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KT노동조합은 노동계의 산 증인이다. 선진계에서도 노동의 신성함과 가치를 강조하셨다. 최근 우리나라의 화두 역시 복지다. 정위원장과 대의원들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경기지사 예비후보들도 뒤를 이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남



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대한민국 통신 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kt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kt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고,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2009년 kt가 스마트폰 사업을 일궈내며 기반을 만들어왔지만 통신업계 또한 복지문제 현실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KT노조가 중심이 되어 IT강국의 최첨단에 설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또한 "국민들이 의지하고 사랑하는 kt는 대한민국의 중추다. 위기가 기회이듯 저력을 보여줄 것이라 확신하다"는 축사를 더했다. kt출신 국회의원들도 분위기를 이어갔다. 노조위원장 출신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지난 25년간 kt에 몸담았던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정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힘을 내서 발굴의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며 "1등! kt!"를 외치는 등 kt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실었다. 이날 유일한 야당 의원으로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전직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지낸 경력답게 "미래를 저당 잡고 열심히 일하는 만큼 조합원들이 재미있는 직장생활을 하기 바란다."고 격려하면서, "사기를 북돋아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정당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KT노동조합, 2014년 힘찬 도약과 전진! 다짐

한편, 황창규 회장은 축사를 통해 "취임 한지 두 달이 지났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 속에 미래에 대한 도전과 전환점에 와있다."며 인사한 뒤, "kt의 당면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100년 전통의 경험과 지식으로부터 내려온 저력과 상생의 노사문화가 kt의 자산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하고 최고의 품질 네트워크를 통해 에너지, 미디어,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 서비스를 발굴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kt로 나아가갈 수 있도록 하자."며 "노동조합의 소리를 경청하며 열린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국민경제발전을 리드하는 kt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은 창사 이래 맞이하는 최대의 위기를 극복하자는 뜻이 담긴 '단결의식'도 진행됐다. 정윤모 위원장과 황창규 회장을 비롯, 12개 지방본부위원장들은 단상에 올라 희망의 촛불을 전달했다. 조명이 꺼지고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의식은 엄숙하고 진지하게 진행됐다. 정위원장과 황회장으로부터 시작된 촛불은 12개 지방본부위원장을 거쳐 조합원들에게로 모두 전달, 의지를 담은 불꽃이 500여 등지를 넘어 5만 kt가족들에게 전달되기를 함께 희망하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정 위원장은 "KT노동조합 32년을 걸어오면서 즐거움과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동지들이 있었기에 행복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모두가 어렵다. 이 촛불이 어둠을 밝히듯 모두 분연히 일어나 새롭게 kt를 만들자"고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정 위원장과 황 회장은 이어 조합원들의 뜻이 담긴 핸드프린팅 현수막에 두 사람의 손도장으로 화룡점정을 장식하며 대회 1부를 마무리했다.

30분의 휴식 후 진행된 올해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본대회는 전국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윤모 위원장을 의장으로 총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 ▲ 2013년도 사업보고 및 예산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 2014년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편성 승인에 관한 사항 등 3개항이 대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가결됐다.

전국 대의원들은 끝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만장일치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받는 노동조합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낭독한 뒤, 2014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에는 국악계의 아이돌이자 kt '광대역 LTE' 서비스 광고의 주인공인 송소희양이 깜짝 등장해 축하무대를 펼쳤다. 송양은 이날 아리랑 등과 함께 올레 CM송 '아나라오'를 열창해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어느 때보다 전국대의원대회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사면초가 kt, 출구는 없나?

창사 이래 연쇄 '악재 폭탄' 위기 상황... 체질 개선의 긍정적 기회로 삼아 극복해야

올해 초 황창규 회장이 취임하고 어느덧 100일을 지나 상반기를 보내고 있다. 현재 kt는 연이은 안팎의 악재들로 인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로 부를 만큼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지난해 실적 악화와 전임 회장의 파문, 과당 보조금 경쟁에 따른 영업정지 그리고 최근 불거진 고객정보 해킹사건까지. 각종 악재가 터지면서 '글로벌 1등 kt'으로서의 체면이 구겨질 대로 구겨졌다. 짙은 안개 속과도 같은 이 혼란을 뚫고 kt는 어떻게 다시 재도약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업친 데 덮친 격, 고객 정보 해킹 유출 사고

“고객님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 보호에 최우선으로 노력해왔으나, 소중한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경찰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당사의 홈페이지에서 고객님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카드결제번호, 카드유효기간, 은행계좌번호, 주소, 이메일, 고객관리번호, 유심카드번호, 서비스가입정보, 요금제정보)를 유출시킨 범인을 검거했다고 발표(2014.3.6)하였습니다. kt는 침해사실 확인 후 불법 접근 시도를 차단하는 등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kt는 가장 최우선으로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인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며, 다시는 불의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빠른 시간 내에 혁신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악용하여 개인정보를 옮거나 불법TM으로 의심되는 권위를 받으시는 경우 kt고객센터, 이동통신 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1661-9558)로 연락 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kt를 믿고 사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주식회사 케이티 일직원 일동-

*개인정보 유출확인 안내: 올레닷컴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우선 114번, 유선100번)

다. kt는 이 같은 경영 위기를 맞으면서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던 중 새 CEO 교체와 함께 혁신경영과 개혁을 추진 중이었지만 설상가상으로 올해 고객센터 '올레닷컴(olleh.com)'의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해 직격탄을 맞았다. 해킹 사건이 발생하자 황창규 회장은 광화문 사옥에서 대국민 사과의 뜻을 밝히고 머리를 숙였다. 황 회장은 2차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물론 아무리 보안에 최선을 다해도 온라인 해킹 사건의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2012년 7월, 본사와 대리점을 잇는 내부전산망 해킹으로 870만 건의 고객정보 유출사건에 이은 재 사고라는 점에서 더 비판을 받았다. 2년 전에도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대형사고 이후 고객정보 보호 시스템과 보안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은 탓이다. 당시 경영진 역시 대국민 사과와 함께 보안 분야 투자를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아 국민기업인 kt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셈이 됐다.

영업정지 처분 '치명타'

지난 3월 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 보조금 지급과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중지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에 대해 45일간 사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각 통신사들은 역대 최장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순차적으로 영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포화에 이른 통신시장에서 이 같은 영업정지 조치는 치명적이지만 통신업계 내부에서도 '기본으로 갖춰야 할 통화품질이나 고객정보 보호에는 소홀한 채, 단말기 보조금을 이용한 가입자 뺏기 쟁탈전에만 관심을 두지 않았나'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로서 kt는 당장 45일에 달하는 장기 영업정지를 돌파해 시장 지배력을 회복하는 숙제를 또 하나 안게 되었다. 하지만 기존 경쟁사뿐 아니라 저가를 무기로 도전하고 있는 알뜰폰 업체의 기세도 만만치 않아 현재 상황은 kt에게 쉽지 않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kt는 지난 1월 34,675명, 2월 49,055명(알뜰폰 포함)이 경쟁사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드오션을 넘어 전쟁 그 자체인 통신 시장에서 kt의 입지는 갈수록 위협받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kt의 비대한 조직도 위기의 한 요인으로 자주 오르내린다. kt의 임직원 수는 경쟁사에 비해 5~8배 정도 많지만 생산성 지표는 가장 낮은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급변하는 외부환경과 비교해 생산성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지만 인건비 비중은 높아지고, 복지 혜택은 줄어드는 현재의 적자 경영 시스템을 유지하다가 kt는 해마다 같은 고민을 되풀이해야할지도 모른다.

위기를 인정하고 정직으로 극복하다... 존슨앤존슨의 사례



작게는 한 개인에서부터 크게는 국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위기에 직면하곤 한다. 기업 또한 마찬가지로 크고 작은 위기를 경험한다. '위기'라는 단어에는 수동적으로 회피하고 싶은 위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이때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더 깊은 실패로 이어져 결국 고객에게 외면 받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더 강한 기업이 되는 경우도 있다. 개인이든 회사든 잘 나갈 때보다 위기 상황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슬기롭게 이겨나감으로서 진정한 성장을 하고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주게 되는 법이다.

그런 점에서 세계적 제약회사 존슨앤존슨이 과거 보여준 위기관리 능력은 세계 기업사에 기록될 만큼 모범적으로 평가된다. 베이비리션 같은 유아용품과 일회용반창고 등 각종 의료기기와 약품을 파는 존슨앤존슨은 1982년 그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는다. 자사가 만든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을 먹고 이틀 동안 7명의 사람이 죽는 것이다. 그들이 먹다 남은 약병 속 타이레놀 캡슐에 청산가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세상은 발각 뒤집혔다. 나중에 밝혀지긴 했지만 이는 존슨앤존슨 제조사의 잘못이 아닌 한 외부 정신질환자의 범죄 때문이었다.

하지만 존슨앤존슨은 이러한 위기사실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언론을 통해 적극 알리면서 시중에 이미 유통된 1억 달러의 타이레놀을 즉각 전량 회수, 파기 조치하였다. 회사는 한 달 동안 3만 통이 넘는 전화와 3천통이 넘는 고객 문의에 일일이 하나도 빠짐없이 답장을 보내고 200만 명의 의료진에게 안내문을 보냈다. 그리고 새롭게 안전한 3중 포장 제품을 만들어 다시는 불미스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조치했다. 제품 제조상 결백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당시 짐 버크가 이끌던 존슨앤존슨이 보여준 위기 대처 능력은 탁월했다. 존슨앤존슨은 이 같은 용기 있는 결단과 책임감 있는 행동의 결과, 오늘날 타이레놀 제품은 물론이고 고객으로부터 꾸준한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는 기업이 됐다.

반면에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의 사례는 조직이 위기를 회피하고자 은폐에만 급급하게 된다면 더 큰 위기를 자초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미쓰비시는 자사의 일부 차종에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콜을 하지 않고 이러한 정보를 감추는 데에 몰두했다. 결국 이 사실이 드러나 막대한 비용부담은 물론 판매하락과 최악의 적자를 기록해 주가도 40%나 폭락했다. 무엇보다 돌이킬 수 없는 고객의 신뢰도는 미쓰비시를 도산 직전까지 이끌고 가고야 말았다.

위기를 극복한 글로벌 기업들의 교훈



세계 장난감의 대명사이자 덴마크의 국민기업 레고는 비디오 게임의 등장과 함께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적자를 이어가다가 2000년대 이르러 매각을 고민할 정도로 큰 위기에 봉착했다. 레고는 적자의 원인을 다각도로 섬세하고 깊이 있게 파악했다. 경영 컨설턴트는 물론 세계 각 어린이들과 놀이, 여가시간을 관찰하는 인류학자들에게도 컨설팅을 맡겼다. 그 결과 가장 중요한 위기 극복책은 '핵심'에 집중하는 것을 깨달았다. 레고는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면서도 자신들의 핵심 요소는 조립식 장난감 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핵심을 버린 변신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경영의 기본을 지킨 것이다. 아동복 사업 등은 과감히 포기하고 전통적인 블록 장난감에 집중해, 이를 업그레이드하는 방

식으로 레고는 다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며 재도약할 수 있었다. 과거 1999년 매출감소와 주가하락으로 최대의 위기를 맞은 일본의 닛산 자동차. 닛산의 임직원들은 위기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데만 급급했다. 하지만 닛산의 구원투수로 투입된 카를로스 곤 사장의 진단은 이와 달랐다. 외부에서 원인을 찾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는 철두철미하게 내부에서 원인을 찾고 해결점 역시 내부에 있다고 믿었다. 이후 그는 독보적인 비용절감 정책과 조직 내 파벌주의 극복, 부서 간 장벽 파괴 등의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 새로운 닛산을 만들어냈다.

구성원의 위기의식 공유, 위기 극복의 첫걸음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에게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구성원들의 위기의식의 공유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안정화된 집단은 본능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싫어하기 마련이다. 이대로 변화하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마지막 순간에서야 뒤늦게 혁신에 동참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법이다. 과거 닛산 역시 회사가 가라앉는 상황에서도 사무실과 생산현장에서는 위기의식을 찾아 볼 수 없었다. "닛산은 침몰하는 배다. 우리는 불타는 갑판 위에 있다. 살기 위한 선택은 단 하나, 바다에 뛰어드는 것뿐이다"라고 스스로 외치며 모두가 위기를 현실로 체감한 이후부터 비로소 내부의 변화가 시작됐다.

변화혁신의 첫 단계는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것이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 밖에 없듯이 기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오직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다. 위기를 극복하는 주체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적극적 참여 의지를 가진 구성원들 자신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과 적극적인 자세로 위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반복되는 위기에 대비해야

최근에 연이은 kt 내외부의 대형 약재에도 느낄 수 있듯이 위기는 한번 극복했다고 해서 정복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한 개인의 인생에 여러 순간이 찾아오듯, 한 기업의 진로에도 위기 또한 늘 새로운 형태로 다시 찾아온다. 다른 조직의 위기 극복 조치나 사례가 현재 우리 조직의 온전한 해결책이 될 수만은 없다. 위기의 종류와 성격이 기업마다 다를 수 있고, 기본적으로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 기업의 체질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 위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한 조직은 그것이 노후와 지혜로 남아 다시 또 다른 위기를 맞아도 그것이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뛰어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집단이 처한 위기에 대해선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중장기적으로 내부 체질을 개선하는 데 영향을 줘 바닥을 치고 올라올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그동안 국내 정보통신의 역사를 써온 kt가 비운 뒤 땅을 굳혀 다시 글로벌 1등 기업으로서의 반동의 발판을 다질 수 있을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망각의 늪에 빠진 사람들

치매환자 59만 시대, 당신의 가족은 안녕하십니까?



최근 유명 아이돌그룹의 멤버 아버지가 조부모를 살해한 후 자살한 사건이 보도됐다. 사건은 치매에 걸린 조부모 부양에 따른 우울증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치매 환자 급증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치매 가족의 불행은 극단적인 가족의 해체를 불러오기도 한다. 치매를 더 이상 환자 개인이나 가정, 혹은 노인 세대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치매 가족의 실태를 들여다보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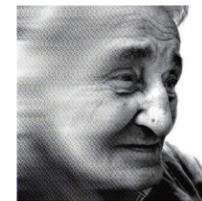
치매란 무엇인가?

2014년 중앙치매센터가 집계한 '전국의 치매 환자수'에 따르면, 치매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9.28%인 59만 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치매 환자수의 증가 속도도 매우 빠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 15분에 한 명꼴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수가 2030년에는 약 127만 명, 2050년에는 약 271만 명으로 20년마다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불과 30년 뒤에는 다섯 집에 한 집 꼴로 치매환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치매는 후천적으로 기억, 언어, 판단 등 여러 영역의 인지 기능이 감소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증상을 말한

다. 치매에는 노인성 치매, 중풍 등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가 있으며, 이밖에도 다양한 원인에 의한 치매가 있을 수 있다. 치매는 노인에게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초로기 치매 등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치매환자는 대부분 알츠하이머병이라는 뇌가 퇴화하는 질환을 앓고 있다. 이 환자들은 처음에는 최근의 기억을 잃어버리고 판단력과 추상적인 추론 같은 고도의 지적 기능을 상실한다. 그 후에는 기억상실이 더욱 심해져 공간과 시간 감각을 잃어버린다. 때로는 감정이 불안정해지기도 하고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도 퇴화하며 결국에는 조리 있게 말하는 능력마저 잃어버린다.

사회적 안전망은 걸음마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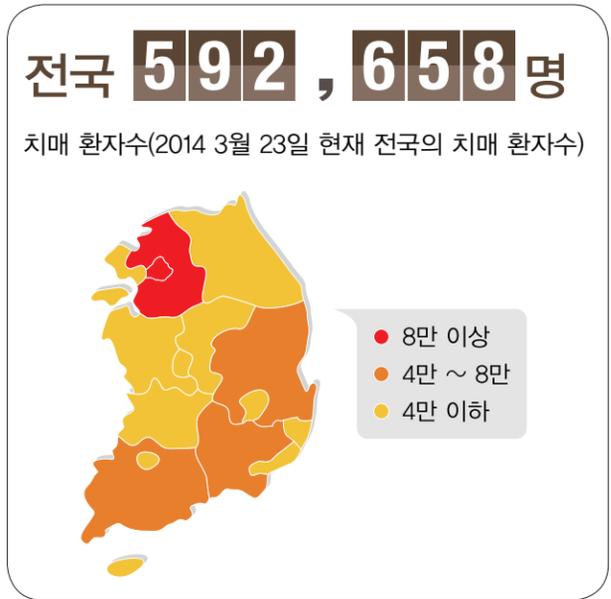
(사진 : Pixabay, Public Domain CC0)

치매 환자 급증과 치매가 암보다 두렵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도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정부는 이미 2008년 9월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치매의 조기 발견과 예방, 치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치매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7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치매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 2만 5천명 이상이 요양보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를 2015년에는 1만명까지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프라는 현실에 못 미치고 있다. 치매 가족의 고통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 가족들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다. 치매환자 한명을 수발하기 위해 환자 가족은 연간 1,968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연간 10조 6천억 원에 이르는 규모다. 치매는 관리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통을 넘어 관심과 이해로

치매 3등급으로 분류된 치매환자의 경우 인지능력이 20% 정도 남아있는 수준이다. 3세 아이 수준의 지능지수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을 수없이 반복하고 때를 쓰거나 기억을 조작해 억지 주장을 펴기도 한다.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거나 험담하며 괴롭히



전국 치매가족의 연간 치매비용 <자료:중앙치매센터>

는 일도 부지기수다. 밖에 나갔다가 길을 잃는 경우도 흔하다. 이로 인한 가족의 스트레스가 심각한 우울증으로 이어지기 쉽다. 고심 끝에 전문요양시설의 문을 두드리지만 부양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은 심리적 압박감 또한 크다. 결국 가족 모두가 절망에 빠져 삶이 피폐해지게 된다.

치매는 다른 질환보다 가족의 돌봄에 특히 의존하게 된다. 치매 환자는 의사 표현이 어렵고 상황이 수시로 변하므로 돌봄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이를 대하듯 너그러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치매는 뇌 신경세포가 지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남아있는 건강한 세포가 역할을 대신 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 치매환자가 실수했을 때 야단치거나 화내지 말고 기분전환을 시켜준다. 치매환자는 일상생활의 여러 부분에서 불편을 겪는다. 그러나 마음은 기억이나 지능과 관계없는 감정의 변화이며 이러한 감정은 남아있다. 치매환자의 마음을 존중해 주고 생활 리듬을 잘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노력으로 이상행동을 줄일 수 있다. 보호자가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안정되어야 치매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좋다.

“고객들과 만나며 인생 배웁니다.”

충남고객본부 천안지부 CS컨설팅팀 김정진 조합원

고객의 입장에서 A/S직원이나 판매영업사원, 또는 상담원이야말로 기업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들과의 짧은 만남이 기업과 제품에 대한 이미지로 각인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판매영업사원이라면 고객과의 접촉에서 안겨준 좋은 인상이 지속적인 관계 유지와 수익창출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장에서 고객과 자연스럽게 대면하며 MOT영업을 병행하는 김정진 조합원의 업무는 지금까지 성공적이다. 고객의 마음속에 kt를 가치 있게 자리 잡도록 만드는 그만의 비결이 궁금했다.

고객서비스직 생산성 1위를 달성

김정진 조합원을 만난 곳은 천안지부. 비 오는 굵은 날씨였지만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는 그의 얼굴은 밝았다. 2010년 고객서비스직 1기로 입사한 김 조합원은 현재 개통과 A/S업무 그리고 MOT영업을 병행하고 있다. 불과 4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수사원으로 추천받을 만큼 충분조건을 갖춘 그의 지난해 실적을 보자면, LTE 94건, 인터넷 140건, TV 303건, 스마트홈 22건 등 충남본부 내 고객서비스직 영업생산성에서 1위를 수성하면서 CEO표창을 받고 그해 8월에는 GB올레스타를 달성했다.

사실 kt와 김 조합원의 인연을 좀 더 더듬으면 대학시절 인터넷이 한창 보급될 당시 협력사 아르바이트를 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세월까지 따지면 2000년부터 지금껏 약14년을 천안지부에서 몸담은 셈이다.

MOT, 즉 고객과의 접점에서 매출로 이어지는 영업활동을 개통과 A/S까지 감당하는 현장업무와 병행한다는 것이 언뜻 생각해도 쉬운 일은 아닐 듯한데, 그는 오히려 서비스를 통한 고객과의 대면은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상품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고객을 만날 때는 단순히 서비스를 주고받는 상거래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것이 저는 좋아요. 짓궂은 표현일지 모르지만 ‘고객과 사귀다’고 할까요. 그래서 언제든 만나면 넉살 좋게 커피 한잔 청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인간관계로 남고 싶어요.”

오픈을 준비하는 상가나 건물 신축, 리모델링을 개소하는 곳이 있으면 그는 미리 상가주인을 찾아가 얼굴을 익히며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열심히 발로 뛰는 것이 첫째라는 얘기가.

위기는 절호의 기회

또 한 가지는 개통이나 A/S로 일반고객을 만났을 때의 연계 판매다. 고객이 아직 상품을 잘 모르거나 사용하지 않는 상품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자세한 설명을 통해 자연스럽게 판매로 이어지게끔 만든다.

“흔히 지인판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결국 지인을 늘이면 편하게 상품도 팔 수 있고 너스레 떨 듯 부탁도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물건도 이왕이면 아는 사람한테 사주잖아요. 이심전심 아닌가요?”



지속적인 신뢰감을 주는 것은 물론이다. 그는 고객에게 특히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웬만한 것은 직접 돕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빡빡한 스케줄 속에서 틈을 내 고객에게 달려간다는 것은 마음을 내지 않으면 어렵다. 때문에 고객들은 그들의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해주는 그의 고마움을 알아준다. “사실 고객들이 A/S를 신청한다는 것은 상품에 대한 불만족에서 비롯된 것이잖아요. 고객들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100 번에 전화를 걸면 기다리는 과정을 거치는 만큼 짜증이 더 나겠죠. 그래서 저는 ‘현장으로 직접 전화를 하라’며 제 명함을 고객에게 드려요. 어차피 도움을 주는 업종, 기왕이면 생색내가며 일하면 고객들도 고마워하더군요.”

다짜고짜 짜증부터 내거나 장시간 전화통화를 하는 등, 불만이 많은 고객일수록 이야기를 귀담아 잘 들어준다. 그러다보면 화를 내고 다혈질이던 고객이 오히려 열성고객이 된 이들도 많다고. 곧 해지할 것처럼 열을 내다가도 좀 더 성의 있는 태도로 대하면 화를 냈던 걸 금방 후회하기 때문이란다.

“관할구역 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불만이 많았던 고객이 있었는데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이것저것 들먹이며 30분 이상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던 분이였죠. 심지어는 다른 고객 방문 전에 집밖에서 긴 시간 말씀하시는 바람에 어찌나 난감하던지. 하지만 그런 분 이야기는 절대 중간에 끊으면 안돼요. 끝까지 들어줘야 합니다. 한번은 집에 방문해서 지저분한 선을 싹 정리



해드린적도 있었죠. 진심이 통했는지 모든 해지할 것 같던 분이 지금은 앞장서서 이웃들에게 저와 kt를 소개시켜주십니다. 설사 불편한 고객들을 만나더라도 거부하고 피하지 않으면 현장에서의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언제나 도전

김 조합원은 일을 나가보면 아직 kt를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다 권위적이고 변화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진 분이 많다고 느낀다. 천안 외곽의 목천, 병천 등 시골지역 나이 지긋한 분들은 지금도 kt를 전화국으로 알고 있단다. 하지만 그런 이미지조차 친숙하게 대해주는 것이라 여기면 한발 더 진실하게 고객에게 다가설 수 있다며 웃음 지었다.

“현장에 있다 보면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을 배운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도 반성하게 되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베풀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기도 하죠. 무엇보다 도전의식이 생겨요. 어릴 때는 수줍음이 많았는데 지금은 당당함과 자신감으로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면서 타인에게 신뢰를 주려고 노력합니다.”

목소리야말로 고객과의 첫 대면이라고 생각한다는 김 조합원은 밝은 목소리로 친숙함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가 하면, 고객과의 만남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에 걸쳐 관심사를 나눌 수 있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그의 영업 방식이 달



리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고객을 대하는 이런 세심함은 큰 차이를 만들었다.

“늘 도전한다는 생각으로 영업장 문을 두드려요. 후배들에게도 말합니다. 이 지역 존에는 무슨 가게가 있는지 어떤 특색이 있는지 관심있게 보라고 점심을 먹을 때도 한 곳만 다니지 말고 많은 식당을 다니면서 지역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요. 그래서 저는 번지보다는 간판을 외우라고 하죠. 이사 오시는 분들께 번지는 몰라도 ‘꽃집 옆집 아닌가요?’라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요. 지역에 대해 조그만 것이라도 알고 있으면 고객과 공감대가 형성되니까요.”

김 조합원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바쁜 일상 속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방법은 바로 캠핑이다. 주말이면 안면도 바닷가로 캠핑을 자주 떠난다. 어떤 때는 직원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방문하기 싫어하는 고객에게 우연찮게 캠핑얘기를 나누며 성과를 올린 적도 있다. 고객과의 공통 관심사는 자신의 일처럼 함께 해주다 보니 영업의 성과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돼버렸다.

업무 효율성 떨어지는 현장 개선됐으면

실적이 우수하고 낙살 좋은 그에게도 어려움은 있다. MOT업무의 특성상 민원이 발생하면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에 현장 스케줄이 손에 안 잡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장업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는 시간이 저녁 7시가 훌쩍 넘으니 처리하는 일에도 한계가 있다. 기준이 없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장의 시설은 그 중 가장 큰 복병이다.

“현장에 나가면 설계 위주의 시설이라 현장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럴 때는 쉽게 끝날 수 있는 작업도 애를 먹습니다. 작년의 경우 LTE에 치중해서 광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보니 광을 원하는 고객에게 ADSL을 붙여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죠. 결국 고객들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은 현장에 있는 저희들이에요.”

그는 회사가 영업만 일률적으로 권장하기보다는 각자의 적성에 맞게 실력 발휘 할 수 있게끔 양성해주었으면 한다는 당부도 있지 않았다.

“제가 영업을 병행하며 운 좋게 성과를 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현장 일만 하기도 벅잡니다. 영업성과까지 올려야 한다는 것은 부담이죠. 저는 영업을 모든 사람이 다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적성에 맞는 일을 권장한다면 회사에도 이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장이 있어야만 영업을 할 수 있죠. 함께 가야 하는데 현장은 외면 아닌 외면을 받고 있어 안타까워요.”

김 조합원은 늘 자신이 개인사업을 하는 오너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 큰 회사에서 자신의 역량을 배워나가고 싶다는 포부를 당당히 말했던 면접 때의 마음 또한 아직 그대로다.

“얼마나 좋아요. 맨날 ‘olleh, olleh...’ 광고도 해주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이 일에서 얻을 수 있는 저의 재산이죠. kt에서 조직을 배우며 성장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알게 모르게 kt라는 백그라운드가 나의 위신을 높여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회사에 감사하죠.”

향후 그의 꿈은 사내강사다. 실무에 가까운 경험을 토대로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회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싶다. 모른다. 몇 년이 지나면 사내강사 김정진이라는 명함을 어디선가 건네받을지도. 혹여 그 때가 되더라도 인간미 가득한 그 낙살만은 여전하지 않을까.

비효율 딛고 경쟁력 끌어올린다

포화상태에 놓인 유무선시장에서 활로를 개척해야 하는 과업은 비단 새 경영진에게만 부과된 것은 아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의 이익보다 조직과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생각의 전환 바로 그것이다. 신임 황창규 회장이 kt CEO로 내정되던 지난해 12월 17일, kt의 주가는 1.47% 상승한 것으로 장을 마감했다. 경쟁사인 S사가 아무런 호재 없이도 2.93%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신임 사장의 내정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에게 별다른 감동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kt의 주가 하락세는 지난해 5월 4만 1천 250원으로 최고가를 보인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다가 황창규 회장의 취임 후 지난 3월 한 달 내내 3만원을 넘지 못하는 등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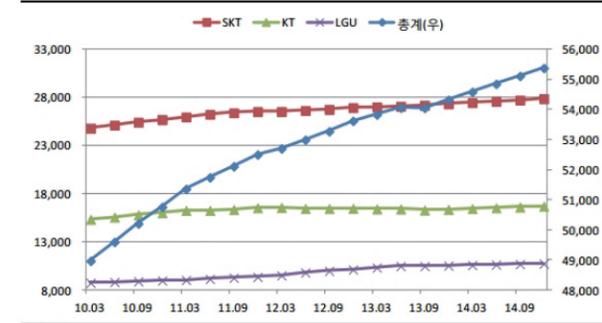
고전을 면치 못하는 유무선시장

kt의 가장 근본적인 위기는 포화상태를 맞은 유선시장에서 위기 탈출을 위한 별다른 전략을 내놓지 못하는 것에 원인이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당시 1805만 명에 달했던 kt 유선 가입자 수가 지난해 10월에는 357만 명이 떨어져나간 1448만 명으로 추산됐다. 한국투자증권이 조사한 kt의 ARPU 지수도 지난 2007년 당시 1만6511원에서

지난 2013년에는 1만원 미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최근 이사철을 맞아 유선 가입자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긴 했으나 시장의 추이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렇다면 kt가 겪고 있는 유선시장의 위기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경쟁사인 S사와 L사의 경우 오히려 가입자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t가 별다른 마케팅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경쟁사에는 유

이동전화 가입자

(단위 :천명)



※ 자료 : SK증권 / 주:MVNO 가입자 포함

무선 결합상품을 통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자사의 고객들을 하나둘씩 흡수해 간 것으로 봐야함이 옳다. 유선시장에서 kt가 고전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선 LTE 출시 후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유무선 시장에서 kt의 경쟁력 약화가 위험수위를 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유선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무선부문도 기대만큼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LTE 서비스 개통 직후인 지난해 10월 당시 kt 가입자 수는 1636만 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오히려 24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S사는 19만 명, L사는 78만 명이 늘어난 것과 사뭇 대조되는 풍경으로 이는 kt가 4세대 이동통신시장에서 경쟁사에 비해 늦게 사업을 착수함으로써 경쟁력을 제때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비효율적인 인력구조, 그 해법은?

일각에선 kt의 위기가 비효율적인 인력구조 때문이라는 시선이 있다. kt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2012년 기준으로 8.16%로 경쟁사인 S사의 2.61%, L사의 3.69%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비용으로 추산할 경우 kt는 1조 9426억 원으로 S사 4916억 원, L사 4033억 원과 비교했을 때 약 1조 5000억 원의 차이가 난다. 인건비를 1조원 정도로 낮추기 위해선 5000억 원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8000여 명을 감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kt가 최근 구조조정을 통해 영업이익을 개선한 것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5992명의 인력을 감축한 결과 연간 4600억 원의 인건비 절감효과를 거두며 영업이익을 끌어올렸다. 하지만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직원 수는 꾸준히 늘어 3만 2천여 명(2012년 현재)으로 불어났으며, 계

열사 확장과 더불어 그룹사 전체로 봤을 때 6만 명으로 다시금 비대해졌다.

현재의 비효율적인 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대규모 인력감축이다. 물론 인력감축 없이 경영 상태를 호전시킬 수도 있다. 기존 인력을 신규사업에 투입함으로써 새롭게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선 안정적 경영환경이라는 토대 위에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말하자면 지금은 신규사업을 개척할 만큼 여유로운 때가 아니라는 뜻이다. 현재 kt가 처한 환경은 단지 효율적 '개선'이 아닌 험난한 시장에서의 '생존'이 요구되는 만큼 고통분담은 어쩔 수 없는 대안임을 인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조합원과 경영진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

험난한 유무선시장에서 kt가 난항을 겪고 있는 사이 황창규 신임 회장이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는 조직개편과 임원축소였다. 황 회장이 추진했던 핵심은 비효율적인 조직의 슬림화 및 현장 중심의 경영 강화로 요약된다. 22개의 부문 및 본부를 9개로 통합하고 기존 130명이던 본사 임원을 95명으로 줄였다. 반면 상무보 승진자 중 현장 근무자 비율을 지난해 22%에서 45%로 두 배 이상 늘리는 등 회사를 살리기 위한 나름대로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를 살리기 위한 방법은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kt 전체를 다룬 사이징하는 작업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함께 일해 온 동료들 떠나보내는 것만큼 괴롭고 힘든 일은 없다. 하지만 누적되는 인건비로 인해 적자가 불어나고 경쟁력을 잃게 됨으로써 악화된 노동환경과 복지수준을 구성원들이 감내해야 한다면 이 또한 불행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고통분담은 위기가 아닌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다.

kt 조합원들에게 지금 이 시기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약화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이익 창출을 위해 경영진과 조합원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국가경제의 한 축을 책임지는 거대 기업으로서 통신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과업에 경영진의 전략과 조합원들의 하모니가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함께 키우는 평등세상

106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노총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3월 7일, 한국노총은 서울 구로구 구로구민회관에서 제106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함께 키우는 평등세상'을 슬로건으로 치러진 이날 행사에는 600여명의 한국노총 여성 조합원들이 참석, 여성 노동현안과 이슈를 공론화하며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차별철폐와 권리쟁취를 위해 싸워온 여성노동운동 100년을 돌이키며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 한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에 여성문제해결 촉구

3월 7일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된 한국노총 전국여성노동자대회는 전국에서 모인 한국노총 여성조합원들이 '노조 내 성평등 실현과 여성대표성 강화' 등이 적힌 나비 모양의 플래카드를 손에 들고 여성의 날을 기념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이혜진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대회는 한국노총 및 26개 회원조합 깃발의 입장으로 힘찬 막을 올렸다. 노동의례에 이은 3·8여성의 날의 유래와 경과보고에서 김순희 여성본부장은 지나온 한국 여성노동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여성노동자상'은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 KT 노동조합 박호근 여성국장을 비롯해 회원조합에서 추천한 17명이 여성기본권 향상과 노조 내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고,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이 '평등상'을 받았다. 철도노조는 대전도시철도역사관리지부 조합원 30%감축, 고려대 관리지부 10%감축 등에 반대하며 비정규직 조직화와 노조 조직률 제고, 여성사업 활성화에 힘써왔다는 평가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강조하며 출범했지만 국민의 삶은 물론,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행복체감지수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고용율 70%달성을 위한 시간제일자리 확대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일·가정 양립형 '퍼플잡'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여성고용의 질만 악화시켰다. 질 낮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은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하고 남녀의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해 사회양극화와 노동시장의 성별분업을 더욱 고착화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여성 노동자들의 결집 강화도 당부했다. 그는

"투쟁의 역사, 노동의 역사를 보면 남성과 여성이 다를 것이 없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여성과 남성의 권리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를 위해 연대와 단결로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 약속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여성 대통령 시대 여성은 행복하지 않다"며 "여성들의 고용율 전체 70%를 달성을 위해 쏟아져 나오는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우리 여성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일과 가정양립을 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현장의 요구를 듣는 순서에서 주한미군 종사자들로 구성된 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의 구미진 평택지부 부지부장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제로 미군이 임금을 동결, 강제로 무급 휴가를 써야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구 지부장은 "1만 2,000명의 조합원 중 15%가 비정규직이고 이중 50%이상이 여성근로자"라며 "그중 일부는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임에도 주 40시간 이하의 시간과 월 100만원 임금으로 생활하는 실정이다. 특정 부서에서 사측의 여러 사정을 핑계로 일부 보직 시간을 추가적으로 감축한다는 통보를 받고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은 미군이 지난 3년간 미국 경제 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동결한 데 이어 지난 1월 11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하자 미군이 4월 1일부터 근로자 강제 무급휴가를 발동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상황이다.

또한 김영숙 국회 환경청소노조위원장도 국회 환경미화원들의 직접고용 여부와 관련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지만 '공공부문 슬림화' 원칙을 이유로 불가 입장만 들었다며 "저희는 한 번도 임금 인상을 원한 적이 없다. 단지 고용안정과 신분 안정, 사람대접을 받고 싶다."면서 3년마다 용역업체 변경으로 인한 고용불안정을 호소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노조 내 성평등 실현 및 여성대표성 강화 ▲노동법 개정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 ▲여성 고용의 안정성 강화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 분담화와 임신·출산·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제 이행 ▲일·생활 균형을 통한 실노동시간 단축 등을 5대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대회에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 르네상스서울호텔노조 울동패 '불나방'의 공연, 여성노동이 존중받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단 평등나무 점등식 순서가 마련돼 여성의 날을 함께 축하했다.

한편, 세계여성의 날은 1975년 UN에서 공식 지정해 세계 170여 개국에서 이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한국노총은 1996년부터 독자적으로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통해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여성과 남성의
권리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를 위해 연대와
단결로 힘차게 투쟁
해 나갈 것



ISSUE & SOCIETY

베이비박스과 입양특례법에 대한 찬반 논란

버려지는 아기들을 막기 위한 해결방법 없는가?

- 2014년 1월 14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모텔 지붕 위 하얀 물체 사진이 올라왔다. 그것은 다름 아닌 버려진 아기였다. 이는 한 10대 소녀가 모텔 화장실에서 홀로 출산한 뒤 땃줄을 자르고 창밖으로 던진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했다. 소녀는 임신 사실을 들킬까봐 두려워 아기를 버렸다고 경찰 수사에서 진술했다.
- 2013년 12월 29일, 충북 청주의 한 사찰 주차장. 태어난 지 하루가 된 아기가 버려진 채로 발견되었다. 현장에는 아기의 출생 날짜와 체중만 간략하게 적힌 메모만 있었다.
- 2013년 12월 19일, 서울 종암동 어느 식당 화장실. 태어난 지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은 영아가 발견되었다. 저체온증이 우려되던 아기는 다행히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을 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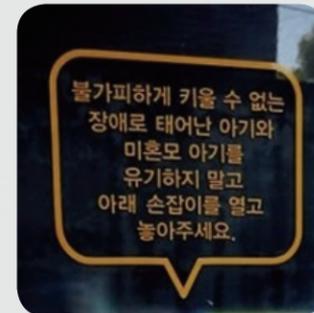


베이비박스- 생명 보호인가, 영아 유기 의 온상인가.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아기들의 안타까운 뉴스가 더 이상 낯설지 않는 사회가 되고 있다. 미혼모의 '나 홀로 출산'과 만 1살이 안되어 유기되는 영아의 수는 갈수록 증가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영아 유기는 2010년 69건에서 2013년 225건으로, 3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기들도 크게 늘었다. 2009년 서울시 관악구의 한 교회가 '길거리에 아기를 버리려거든 이곳에 두고 가라'는 취지로 설치한 베이비박스. 작년 한 해 동안에만 200명을 훨씬 넘는 아기가 이 베이비박스를 통해 들어와 전체 버려진 아기들의 69%를 차지했다.

이 베이비박스에 대해서 길에서 버려지거나 유기살해로 방치되는 아기의 생명을 구한다는 우호적인 입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영아 유기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식입양기관이 아닌 허가받지 않은 불법 행위인데다가 베이비박스의 익명성을 빌려서 영아를 유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베이비박스가 버려지는 신생아의 생명권 보장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과 오히려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입양특례법을 둘러싼 논란

하지만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교회 측에서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 개정된 입양특례법 탓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 8월부터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입양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이전보다 입양 절차가 강화되었다. 개정의 핵심은 가정법원을 통한 입양 허가제이다. 개정 전에는 입양이 성사된 후 신고를 하는 것에 그쳤으나,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입양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특히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생부모의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입양이 완료되면 친생부모의 출산 기록이 말소되긴 하지만 만약 입양이 되지 않는 경우, 미혼모의 호적에는 아이가 계속 친자로 남게 된다.

이 점이 출산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어린 미혼모에게는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법이 미혼모들의 영아유기나 불법 매매와 같은 극단적 선택의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과 함께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입양특례법에 대한 찬성입장 역시 만만치 않다. 입양특례법은 그동안 체계 없이 함부로 이루어졌던 입양에서 벗어나자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요구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법원허가는 법에 의해 아기가 정말 입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양부모가 충분히 기를만한 사람들인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출생신고 역시 국가가 시민권적 차원에서 보호하는 것으로서 입양인(아기) 스스로 누구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입양특례법의 취지는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입양은 국가기관의 허가를 거치도록 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혼모 스스로 양육할 있는 보육지원과 사회적 환경을 마련해야

'사회적 타살'이라고도 불리는 영아 유기. 전문가들은 유기 아동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없애나가는 한편 사회 안전망 등 각종 정책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미혼모가 아기를 키우기로 결심해도 사회적 편견과 생계유지는 큰 벽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 미혼모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미혼모들이 받는 지원은 소정의 양육비 지원뿐이다. 성인 미혼모 경우 소득 기준이 맞을 때만 월 7만원(청소년 미혼모는 월 15만원)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입양한 가정은 소득과 상관없이 매달 15만원, 보호시설은 한명당 1백만원 안팎을 받는다. 입양 아동이 의료비 지원까지 받는다는 점을 비교한다면 미혼모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미혼모 지원정책이 여전히 입양이나, 시설중심의 아동정책에 밀려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버려지는 아이를 막기 위해서는 미혼모가 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공동체가 한 생명을 함께 키운다는 생각으로 엄마와 아기를 함께 보듬는 사회의 따뜻한 시선 역시 필요하다.

해당 교회는 베이비박스에 영아가 들어오면 교회에서 보호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양육시설로 보내는 역할만 하고 있다. 베이비박스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해당 교회에 후원도 늘고 있지만 막상 후원금은 실제 해당 영아들을 돌보는 시 양육시설로는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게다가 베이비박스가 국내유일의 장소로 유명해지면서 전국의 유기 영아가 이곳으로 몰려들어 시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한다.

그곳에 가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

시를 따라 걷는 산책길 소개

따사로운 햇살아래 산책이 더 없이 좋은 계절이다. 몸에 달는 순한 바람으로 메마른 가슴 속에 온기를 불어 넣고 싶다면 잠시 시인의 마을로 떠나 보자. 그곳을 걷다보면 그들이 노래했던 풍경을 만나고, 그들이 꿈꾸었던 세상을 잠시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 떠나도 좋을, 예술의 향기 가득한 그곳을 소개한다.

시인의 언덕을 지나 서촌을 거닐다, 서울 부암동과 서촌

“봄이 혈관 속에 시내처럼 흘러
돌, 돌, 시내 가차운 언덕에
개나리, 진달래, 노오란 배추꽃
삼동(三冬)을 참아온 나는 풀포기처럼 피어난다”
- 윤동주 시, 「봄」 중에서

서울 종로구 자하문터널 위쪽 창의문로에 자리잡은 윤동주 문학관은 2012년 7월, 청운아파트가 철거되며 버려진 물탱크와 가압장 시설에 새롭게 공공건축물로 탄생된 곳이다. 벽에 오래된 물때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거대한 물탱크는 윤동주의 시, 「자화상」 속에 등장하는 우물 모양의 전시실로 거듭나 우리를 반긴다. 문학관 주변 청운동 고갯길은 ‘시인의 언덕’으로 불리며 서울 성곽길을 따라 가볍게 걷기에 더 없이 좋은 장소다.

윤동주 문학관에서 부암동 방향으로 내려와 세검정 쪽으로 더 들어가면 백사실 계곡과 숲이 나온다. 이 곳은 과거 조선시대 선비들이 자연을 즐기며 시를 읊던 장소다. 지금도 ‘백석동천(白石洞天)’과 ‘월암(月巖)’이라는 글자를 새긴 바위를 발견 할 수 있는데 언제 누가 이 각석을 남겼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과거 선비들이 흰 돌이 많고 경치가 좋은 이 곳에 달빛 아래 아름다움을 시어처럼 새겼을 거라고 짐작 할 뿐이다.

서울의 숨겨진 숲에서 그들이 즐겼을 풍류에 공명하며 주변을 잠시 걷다보면 시간여행자가 된 기분이 들지도 모른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인왕산 둘레길을 걷다 옥인동 방향으로 내려오면 서촌을 만날 수 있다. 경복궁 서쪽 마을을 뜻하는 서촌은 멈춰진 시간 속, 오래된 서울을 마주 할 있는 고즈넉하고 정겨운 곳이다.

서촌 일대는 9백여 채의 한옥이 밀집한 인근 가회동의 북촌과 달리 근대에 지어진 도시형 한옥과 현대 주택들이 혼재된 동네다. 1990년대 초까지 이 일대가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었던 까닭에 현재까지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서 이미 관광지처럼 변한 북촌과는 달리 소박한 풍취를 느낄 수 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 좁은 골목길 사이에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가게들과 공방들은 거대한 도시의 틈바구니 속에 피어난 작은 풀꽃처럼 빛이 난다. 오래전부터 서민들과 예술가의 동네로 자리한 서촌은 한옥과 양옥을 절충한 독특한 건축 양식이 인상적인 박노수 미술관을 비롯해 「사슴」의 시인 노천명 가옥, 이상 시인의 집터에 올 봄 재개관한 ‘이상의 집’ 등, 곳곳에 근현대 예술인들의 삶과 그 흔적을 만나 볼 수 있는 마을이기도 하다.

바다를 보며 사랑에 물들다, 경남 통영

통영을 수식하는 단어는 참 많다. 이순신의 고향이기도 하고, 많은 예술인이 나고 자란 곳이라 오래 전부터 예향의 도시로 불리기도 했다. 시인 청마 유치환에게 통영은 아마도 그리움과 사랑의 장소가 아니었을까. 통영에는 시인이 사랑을 키우고 노래하던 언덕과 푸른 바다가 오늘도 반짝이고 있다.



• 윤동주문학관

서울 종로구 창의문로 119 02-2148-4175

• 백선동천

서울 종로구 부암동 115 02-731-1458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 박노수미술관·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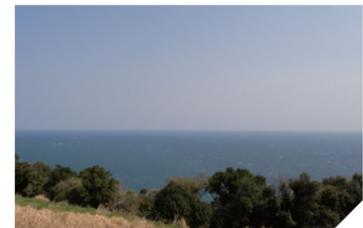
서울 종로구 옥인1길 34 02-2148-4171

• 이상의 집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7길 18 070-8837-8374
(아름지기 재단)

• 노천명가옥

서울 종로구 필운동로 26-21





- 동피랑벽화마을
경남 통영시 동문로 055-650-4550
www.dongpirang.org
- 청마문학관
경남 통영시 망일1길 82 055-650-4591



- 영랑생가
전남 강진군 강진읍 영랑생가길 15
061-430-3185 (강진군청 문화관광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 유치환 詩, 「행복」 중에서

‘동쪽의 벼랑’이라는 뜻의 동피랑 마을은 통영 앞바다 한려수도를 한 번에 내려다보기에 가장 좋은 언덕이다. 이곳은 한때 철거대상이 되어 사라질 위기에 처했지만 지역 예술가들이 담장과 지붕 등 곳곳에 그림을 그려 넣어 전국적 명소가 됐다. 오래된 항구마을 가 파른 골목길에서 만나는 다양한 벽화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공동체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뻑뻑한 골목길을 올라 언덕 위에 서면 저 멀리 푸른 남해 바다가 펼쳐진다. 20년 동안, 사랑해서는 안 되는 한 여인에게 수 천통이 넘는 연서를 보냈던 청마 유치환 시인의 사연이 떠올라서일까, 이 곳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당장에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고만 싶어진다. 과거 백석 시인 역시 통영 명정골에 살던 한 여인을 마음에 품었지만, 그녀가 떠나고 없자 이 곳에서 시를 남겼다고 전한다. 동피랑 언덕에 부는 바닷바람은 그렇게 서로의 마음에 닿지 못하고 남겨진 편지를 닦아왔다.

대나무숲과 솔내음이 가득한 예던 길, 전남 강진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 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 김영랑 詩,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중에서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남도답사 일번지라고 칭한 강진. 강진은 우리에게 다산 정약용의 자취가 남아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모란이 피기까지는」이라는 시로 유명한 우리나라 대표적 서정시인이자 민족지사인 영랑 김윤식의 생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강진에는 ‘영랑과 다산의 예던 길’ 산책 코스가 있다. ‘예던 길’은 ‘가던 길’의 옛말이다. 총 3종류의 코스가 있는데 마량항을 출발해 남호해변과 고바우공원, 청자박물관, 영랑생가 등을 있는 약 36km의 바다 돌레길은 소리 없이 품어주는 넓은 아량을 지닌 길이다. 또한 다산초당으로 향하는 산 속 오솔길은 양 옆으로 두층나무와 리기다소나무 숲이 펼쳐져 자연스럽게 사색에 잠기게 한다. 특히 이른 아침 돌샘을 지나 백련사에 이르는 이 오솔길에서 만나는 솔내음은 걷는 이의 마음을 정화시킨다.

영랑 시인의 가족들의 고증을 얻어 1993년에 복원한 영랑 생가는 읍내 강진군청 옆에 자리하고 있어 초행자들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곳이다. 단아한 생가에는 시의 소재가 되었던 동백나무와 샘, 장독대 등이 남아있으며 특히 모란이 많이 심어져 있다. 시인이

생전에 시를 쓰던 사랑채 뒤편으로는 울창한 대나무 숲이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다. 사랑채에 앉아 듣는 대숲이 내는 소리는 지친 마음을 달래주기에 충분하다.

생가 옆으로는 그리 높지 않은 보은산(439m)으로 이어지는 한 시간 남짓 산책로가 있는데 다산 정약용의 자취가 남아있는 고성사 보은산방을 향하는 길이기도 하다. 고요한 산책자의 마음을 붙잡는 이 고운 흙길은 그 자체만으로 오래된 친구 같은 편안한 휴식의 시간을 선사한다.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충북 옥천

“길로만 오시다
한 고개 넘어 우리 집
앞문으로 오시지는 말고
뒷동산 셋길로 오십쇼”
늦은 봄날
- 정지용 詩, 「무어래요」 중에서

충북 옥천은 「향수」로 유명한 우리나라 최초의 모더니스트 시인 정지용의 고향이다. 우리에게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로 시작되는 노래로도 잘 알려진 시, 「향수」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옥천이다. 이 곳에는 시의 이름을 딴 ‘향수 30리’라는 여행길이 있다. 옥천의 옛 중심지였던 구읍과 보은방면 37번 국도변에 자리한 장계관광지를 잇는 이 길 곳곳에는 거리 전체가 마치 하나의 시집 같이 시어를 품고 있다.

구읍마을의 오래된 가게들은 저마다 알록달록 예쁜 간판과 함께 정지용의 시어가 새겨져 있어 볼거리와 재미를 자아낸다. ‘명광정육점’에는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짓고 있고, ‘사랑노래연습장’ 간판 아래에는 “항상 머언 이 나는 사랑을 모르노라”라는 속삭임이 있다.

마을을 걸다가 사립문이 있는 초가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정지용 시인의 생가다. 그 옆에는 그를 기념하는 문학관이 있다. 시인이 떠나고 그리워해야만 했던 이곳 고향을 그의 눈이 되어 둘러 볼 수 있는 곳이다. 과거 오랫동안 월북 인사로 분류돼 오래도록 이름 없는 시인으로만 존재해야만했던 불운했던 그의 인생 속에 우리 분단의 아픈 역사가 겹쳐진다. ‘향수 30리’의 종착점인 장계관광지는 과거 지역 위락시설로 인기를 얻다가 이후 쇠락해 가던 공원이었지만 백여명의 예술가가 ‘멋진 신세계’라는 이름의 공공 예술 프로젝트로 재탄생 시킨 곳이다. 정지용 시인을 떠올리게 하는 모단가게, 모단갤러리, 모단광장, 모단스쿨 같은 이름의 건축물과 자연이 어우러진 대청호 산책로가 백미다. 이 길을 따라 걸으며 만나는 시어들. 그 속에서 나만의 감성과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를 한번 지어보는 것은 어떨까.

- 백련사
전남 강진군 도암면 백련사길 145
061-432-0837
- 다산기념관
전남 강진군 도암면 다산수련원길 33
061-430-3914



- 향수 30리
충북 옥천군청 문화관광과 043-730-4891~2

호모-헌드레드 시대의 도래

100세 건강 장수를 위한 10가지 방법

Homo-hundred



100세

호모-헌드레드(Homo-hundred)는 2009년 유엔의 '세계인구고령화보고서'에서 100세 장수가 보편화 되는 시대의 인류를 지칭하는 의미로 처음 사용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수명이 80세를 넘는 국가가 2000년 6개국에서 2020년 31개국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한 연구는 흡연과 과도한 음주, 운동 부족, 부족한 채소와 과일 섭취 등 4가지 나쁜 습관이 노화를 12년이나 앞당긴다고 밝혔다. 미국의 건강관리 사이트인 '헬스닷컴'이 제시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 10가지를 소개한다.

1. 과식하지 않기



100세 장수를 원한다면 소식(小食)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지구상의 장수마을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장수그룹은 80% 정도 포만감을 느꼈을 때 식사를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인트루이스대학 연구진은 덜 먹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 적절한 성생활



일주일에 2~3회의 만족스런 성관계가 수명을 3년 연장시킬 수 있다고 한다. 성관계는 30분 달리기와 같은 때와 맞먹는 칼로리를 소모한다. 규칙적인 성관계는 혈압을 낮추고 숙면을 취하게 할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증대시키고 심장을 보호한다.

3. TV 끄기

TV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2010년의 연구에 의하면 하루 4시간 이상 TV



를 시청한 사람들은 2시간 이하의 사람들보다 사망확률이 46%나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하루 종일 혼자서 TV만 보는 일상이 반복되면 뇌는 완전히 수동적이 되어 점점 퇴화한다.

4. 자외선 차단하기



적절한 햇빛은 비타민D 합성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피부암 예방을 위해서는 지나친 자외선 노출을 피하는 것이 좋다. 자외선을 적절히 차단하는 것이 주름과 피부 처짐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젊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자외선차단제 사용은 필수다.

5. 인적 네트워크 형성하기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과 적절한 유대감을 형성하지 않은 경우 심장병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감은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나 흡연

만큼 위험하다. 특히 외로움은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노인들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입을 움직이는 근육은 뇌신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럿이 모여 먹고 떠드는 것만으로도 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6. 적절한 음주



하루 2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여성과 하루 3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남성은 체중 증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적정량의 음주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지난 2010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음주(여성 하루 1잔, 남성 하루 2잔)는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7. 채소와 과일 섭취



채소와 과일을 통해 섭취한 섬유질과 비타민은 심장질환 위험을 76%까지 낮출 수 있다. 또 유방암 발병 위험을 줄이는 역할도 한다.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은 염증 작용을 방지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주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8. 꾸준히 운동하기



근육은 사용하면 할수록 굵고 강해진다. 지난 2008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달리기와 같은 규칙적인 고강도 운동은 수명을 4년 연장시킬 수

있다. 운동이 심장과 신진대사에 이로운 뿐 아니라 심리상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같은 적절한 운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9. 금연



담배를 끊는 것은 건강을 위한 첫째 조건이 될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35세까지 금연에 성공한 여성들은 6~8년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흡연으로 인한 폐암과 같이 이미 폐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람들도 금연을 통해 생존확률을 높일 수 있다.

10. 스트레스 해소하기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감정을 해소하지 않고 억누르는 것은 좋지 않다. 마음을 편히 갖되 격렬한 감정이 일어날 때는 적절히 표출하는 것이 좋다. 희로애락의 감정을 강하게 느낄수록 뇌는 활발하게 움직인다. 오감을 생생하게 유지하는 것이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다.

Voices of Readers

고 객 의 소 리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은 더 좋은 [마음이 통하는 '길']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마음이 통하는 '길']을 읽은 느낌과 생각을 (kgb@kt.com)으로 보내주세요.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전북고객본부 이진호

KT노동조합이 벌써 32주년을 맞이했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조합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식지가 조합의 여러가지 소식과 더불어 요즘 사회 트렌드를 말해주는 "안녕들하십니까?" "복고열풍" 등 모두의 관심사에 대해 폭 넓게 다루고 있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IMO운용센터 정원환

벌써 KT노동조합의 생일이 32살이나 된 청년이 되었네요. 그 동안 회사도 많이 변하고 노동조합도 많이 변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조합원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KT노동조합 화이팅!
"90년대를 추억하라"를 보고 많은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PC통신, 삐삐 등 10여년전에 많이 각광 받던 서비스들이었는데... 옛 추억과 회사 입사 초년생 때를 생각나게 해주었네요. 감사합니다.

대구네트워크운용단 성현주

소식지를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글 중 안녕들하십니까? 라는 글을 읽으면서 사회문제에 무관심한 저희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됩니다. 요새 대학생들은 개인주의적이라고 비판을 하지만 그들 역시 저희 세대들처럼 사회문제에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한다고 느끼게 되네요. 다만 표현방법이 다를 뿐이라고요. 이런 생각들이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생활에 바쁘다고 전부 외면하지만 말고 저희 기성세대들이 더욱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글입니다.

KT전남고객본부 이상도

2014년도 정기주주대회 개최 기사를 통해 2월4일 각 지부에서는 2013년도 활동사항과 2014년도 활동 계획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했다는 내용. 또한 정운모 위원장님의 격려사에 강조한 "현장중심의 노동운동을 펼쳐가는 노동조합으로 거듭날 것"과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여매고 더 큰 도약과 전진을 향해 열심히 뛰겠다"는 약속을 언급했다는 기사 잘 읽었습니다. 11대 집행부의 마지막해이니 만큼 노동조합은 큰 결실을 맺는 미래를 약속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군산지부 고재영

안녕하세요. 군산지사에서 근무하는 고재영입니다. 저번에 QUIZ 정답으로 보내주신 문화상품권 감사합니다. 아내가 매우 좋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도 다시 한번 퀴즈 정답 보냅니다.

용전지부 유종선

격월로 보내주시는 소식지가 올 때마다 매번 잘 읽어 보고 있습니다. 최신 이슈와 다양한 노동조합 소식, 그리고 "90년대를 추억하라"와 같은 추억을 되새기게 만드는 기사는 매우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재미있는 기사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컨설팅센터 김성택

안녕하세요. 지면으로 인사드리네요. 이번 창립32주년을 기사를 통해 우리 회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거 같아 희망을 가져봅니다. 희망적인 메시지와 유익한 기사를 제공해주시는 노동조합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KT노동조합 파이팅!

용전지부 조인순

항상 조합원의 복지와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노동조합이 있어 행복합니다. 서로 자축하는 너와 내가 되어 더 멋진 노조로 거듭나시길 기원합니다.

충남고객본부 홍성찬

회장님이 새로 오셔서 우리 kt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도 많이 변해야 합니다. 빠른 경영정상화 및 직원들의 복지증진, 급여향상과 더불어 변화와 소통에 앞장서는 노동조합이 되어 주시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전남고객본부 유승태

첫 페이지에 공자 위정편을 도입하면서 새로운 도전이라는 메시지를 주었는데요. 저 역시도 올 한해도 새롭게 희망을 갖고 도전해가는 한 해로 하겠습니다.



KTTU QUIZ

3월 27일(목) 오후 2시 분당 본사 대강당에서 전국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KT노동조합의 행사 명칭은? (힌트: 8~11페이지 참고)

정답 보내주실 곳 : kgb@kt.com(김근배 홍보국장)

※ 보내주실 때 반드시 **이름/소속/연락처/주소**를 함께 기재해 주셔야 상품권이 배송됩니다.

ANSWER

정답과 함께 소식지 '길'을 읽고난 소감을 메일로 함께 보내주시면 선별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다운플랜 웨딩서비스 상품안내

웨딩 서비스 상세내역

품 목	세 부 사 항	
본 식	신 랑 의 상	턱시도 및 연미복 또는 모닝코트 (해당 샵의 최고급 신상품 사용)
	신 부 의 상	신상 드레스 (해당 샵의 최고급 신상품 사용)
	헤어 메이크업	신랑, 신부 제공
	부 케	부케 1개, 부토니아 1개, 코사지 6개
	본 식 사 진	신랑신부용 원판 및 스냅합본 30p 1권 제공
	이벤트 예식 기획 진행	담당 플래너와 상담을 통한 맞춤 예식 지원
	웨딩플랜 제공	담당 웨딩플래너와 1:1 웨딩 컨설팅 제공
예 식 장 소	지정 웨딩홀 및 호텔 (상담 후 결정)	
리 허 설	신 랑 의 상	턱시도 제공
	신 부 의 상	드레스 2벌, 파티복 1벌 제공
	별 도 의 상	한복, 캐주얼 등의 의상은 개별 준비
	헤어메이크업	신랑, 신부 제공
	앨 범	11x14인치 20p 제공
액 자	20R 액자 제공	
웨 딩 카	벤츠, BMW, 제네시스, 에쿠스 등 제공 (기사 포함 및 미포함 등 회원 선택)	
서 비 스 품 목	웨딩카 장식 및 비품 지원 (성혼선언문, 혼인서약서, 방명록 2권, 장갑7족, 봉투, 펜) 헬퍼비(본식, 리허설) 제공 피팅비 2회까지 무료 제공	
기 타	DVD 또는 페백음식 중 택1 제공 웨딩카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진 원본CD(본식, 리허설) 제공 본사 웨딩플래너가 직접 방문 최적 컨설팅 제공	

전국 웨딩 제휴 사업자

구 분	서 울	경기 / 인천	충 청	전 라 도	경 상 도	강 원
웨 딩 홀	246	210	47	30	110	39
스 튜 디 오	60					
드 레 스	40		4	5	9	3
메 이 크 업	10					
혼 수 / 기 타	15					

※ 웨딩 서비스는 다운 1호, 다운 1-13호(300만원 상품)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